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048-831-3150
FAX：048-824-3532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048-831-3150
FAX：048-824-3532

2011 년 신년 주교 메시지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시편 121,7)

사이타마 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향한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두 가지 점에 대해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10 월 말경에 우리의 교구의 관할 본당 안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지의 학교들에서는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어린이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지, 집단 따돌림을 어떻게 줄여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당에 온 어린이들 중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 특히 혼혈아동[1]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 특히 해외에서 온 이주자 가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상황을 학교나 교육 위원회에 상담하는 데 있어 불안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가족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본당(혹은 블록)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상담을 받고 어린이나 가족들과 나눔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상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좀 더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집단 따돌림을

[1] 일본교회에서는 혼열아라는 단어가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는 하프(half)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역시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하여 교회에서는 더불(Dou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다부르꼬(double 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두 개의 문화를 물려받은 유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신생어입니다.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식구들이 형제자매로서 학교, 교육관계자, 지역사회와 상담이나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 년간, 임시고용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퇴출 등으로 고용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 실직한 사람이나 생활곤궁 자들을 위해 지원, 원조를 해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가 가능한 부분에 참여하여 함께 걸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고쳐 나아가며

여러분에게 듣고자 합니다. 일상의 생활 중, 길바닥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감동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귀가했을 때,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험신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효율우선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의 톱니바퀴로부터 떨어져나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는 이유로, 그저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삶이 커다랗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존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아닐까요?

그렇다고, 일이나 사회적 책임을 모두 버리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생활 안에서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안에서 여러 일들을 전체적으로 5%를 줄여서 5%의 여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사 시간을 5%를 줄여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사 시간을 하루에 4 시간이라고 한다면 12 분입니다. 잔업을 줄여서 5%의 시간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2 시간 정도의 시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를 줄인다는 말은, 식사를 검소하게 하는 것도, 가정의 전기, 수도, 자동차의 가솔린 등을 줄이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5%를 목표로 하여 시간, 돈, 물건 등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5%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가볍게, 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지 않을까요?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5%, 청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5%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고독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형제자매로서 받아들이는 일에 연결된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시편 121 은 땀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 눈을 들어, 저희는 산들을 쳐다봅니다” 라는 1 절로 시작됩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산 저 산을 쳐다보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산 오르기를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산 오르기로 예를 든다면, 산들을 쳐다보는 시간이 5%의 여유에 해당하겠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헤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2011 년 1 월 1 일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